



강석대 우양기건(주) 대표(사진 가운데)가 지난 3월 15일 서울마주협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강석대 명예회장, 서울마주협회 제10대 회장 취임

강석대 우양기건(주) 대표(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가 서울마주협회 제10대 회장에 취임, 앞으로 3년(2018년 2월)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지난 3월 15일 렛츠런파크서울 해피빌 6층 마주전용실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강석대 회장은 “기계설비건설업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서울마주협회가 한국경마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회장, 실천하는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석대 회장은 또 “유능한 CEO란 구성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새로운 성장 에너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한국경마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소통과 상상’으로 대통합의 마주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마주협회는 역대 회장 중 가장 젊은 연령이자 전문 경영인 출신인 강석대 회장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소통과 단결을 통

해 재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을 비롯해 마주협회 역대 회장단 및 마주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부경마주협회 김갑수 회장,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김점오 회장, 한국경마기수협회 이동국 회장,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오영복 회장,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장정기 회장 등 경마관계자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서울마주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서울마주협회는

지난 1993년 개인마주제 시행과 더불어 창립한 서울마주협회는 480명 안팎의 마주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수한 경주마 도입은 물론 경마의 진정한 투자이자 후원자로서 한국경마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경마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경마 매출 세계 7위 등 한국경마의 국제화,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국회의원, 장·차관, 군 장성, 교수, 의사, 변호사, 기업 CEO, 연예인 등으로 구성된 ‘하이 소사이어티’로 통한다. 홍명우(우유진아이엔에스 회장/대한설비건설협회 고문)도 회원이다. 이런 명문 단체를 ‘기계설비건설인’이 이끌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